

## 영유아 교사의 인성 측정 및 인성 교육 개선 방안

김은설

---

1. 문제제기
  2. 영유아 교사 인성교육 현황
  3. 인성 측정 도구 개발
  4. 영유아 교사의 인성 측정
  5. 정책 제언
-



## 요약

- 본 이슈페이퍼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보육하는 교사들이 교사로서의 인성 수준을 적절히 갖추고 있는지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인성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개발된 인성측정 도구는 보편적 인성과 교사로서의 인성 등 2개 영역에서 8개의 하위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총 98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음. 이 도구에 대해 .98 이상의 신뢰도와 적절한 수준의 공인타당도가 확인되었음.
- 영유아 교사의 인성교육은 양성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이 투여되고 있지는 못하며, 개발된 측정 도구를 활용한 실태 조사에서는 영유아 교사가 심리적 건강이나 자기조절 부분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됨.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의 인성 교육 개선 방안을 제시함.

## 1 문제제기

- 최근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 가장 큰 문제가 된 사건 중 하나는 몇몇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유아 학대와 폭력 관련 사태이며 이는 영유아를 둔 부모뿐 아니라 전 국민을 놀라움과 경악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았음.
  - 일련의 이 같은 사건으로 인해 어린이집 CCTV 설치 법제화가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2015년 9월부터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됨.
- 영유아를 돌보는 어린이집에서는 있어서는 안되는 아동 대상 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일이 일어난 배경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음.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는 영유아를 대하는 교사에 대한 교육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점임.
  - 영유아를 교육·보육하는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는 교사로서의 인성과 소양을 지닐 수 있도록 교육 받을 기회를 충분히 가졌는지, 교사로서 그들의 인성이 제대로 검증된 것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본 이슈페이퍼는 '김은설·김길숙·이민경(2015). 영유아교사 인성 평가 도구 개발 및 교육 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보고서의 내용을 발췌, 요약한 원고임.

- 영유아 학대 사건에 대해 교사의 인성만이 유일한 요인이라기보다 다른 측면 즉 보육 교사의 근무 환경적 요인에서 원인을 찾고자 하는 논의도 있음. 그러나 환경적 어려움 또한 교사의 정서조절 능력이라는 측면의 인성과 연결되어 학대라는 부정적 결과를 낳게 할 수 있으므로 인성 교육의 중요성이 전혀 간과될 수는 없을 것임.
  - 교사의 스트레스를 증폭시키고 근무를 어렵게 하는 열악한 근무조건 즉, 쉬는 시간 없이 일일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 언어 이해와 표현 능력이 제한된 영유아를 장시간 계속 돌보아야 하는 직업상의 특성은 인간으로서의 인내심을 극한으로 가져가는 경우를 발생시킬 수 있고, 교사의 기질에 따라 자제력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해석도 있음.
- 다른 한편으로, 영유아를 지도하는 입장에서 유아대상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이 추구하는 목적에 맞도록 교사가 충실하게 교육·보육을 이끌기 위해서, 즉 누리과정이 지향하는 바와 같이 영유아에게 바른 인성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가 먼저 바른 인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장해야 하는 것도 필요함.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해설서를 보면 누리과정의 구성 방향에 대해 첫 번째로 ‘질서, 배려, 협력 등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인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 구성한다’를 언급하고 있음(보건복지부·교육부, 2014). 무엇보다 바른 인성을 가장 먼저 꼽고 있음에 누리과정 전문가와 교사는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누리과정으로 교육과 보육을 받는 유아들이 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게 하는 데는 교사의 역할이 지대함. 발달상 이 시기 영유아는 생활습관, 행동방식, 상황에 대한 이해 등을 모방(modeling)을 통해 대부분 습득하게 되며 교사는 그 모방의 가장 주요한 대상 중 하나이기 때문임.
  - 발달심리학자인 Berk는 모방이 유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학습의 도구라고 함(Berk, 2006: 480). 그런 점에서 영유아를 지도하는 교사는 그 어느 연령을 가르치는 교사와 비교할 수 없이 큰 책무성을 느껴야하는 존재임.
- 영유아교사의 인성적 측면이 보여주는 특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평가 도구가 요구됨.
  - 지금까지 개발된 유치원 또는 보육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성 평가 검사는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실제 교사가 아니라 앞으로 교사가 될 대학생들 즉,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개발된 도구가 대부분이었음(김정환·남현우·염시창·임진영, 2012; 김혜경, 2012; 조운주, 2014).

- 예비 교사 대상 인성 평가 도구는 기본적으로 교사로서 임용에 적절한지를 미리 파악하고 선별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됨.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예비 영유아교사는 재학 기간 중 1~2회 이루어지는 인성 검사를 손쉽게 통과하여 교사로서 임용되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임용 이후에는 그들의 인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검토해 보는 과정이 전혀 없음.
  - 현직에서 접하게 되는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그들의 정신적·심리적 건강은 문제가 없는지, 학창 시기에 드러나지 않았던 인성적 문제가 현실과 부딪혔을 때 두드러지는 점은 없는지 등 측정 도구를 통해 현직 교사들의 인성에 대한 재점검과 이를 근거로 한 교사 지원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함. 이러한 과정이 결국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될 수 있음.
- 영유아교사의 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인성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필요 사항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음.
- 인성교육에 대한 전문가, 현직교사 등의 의견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의 개선의 방향을 생각해보고자 함.
- 본 연구는 현직 및 예비 영유아교사의 인성 실태를 측정하기 위한 인성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인성의 특성을 측정해 보는 데 목적이 있음.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에 근거하여 인성 교육의 측면에서 개선해야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함.

## 2 영유아 교사 인성교육 현황

### 가. 교사 양성과정에서의 인성교육

#### 1) 대학 교수 대상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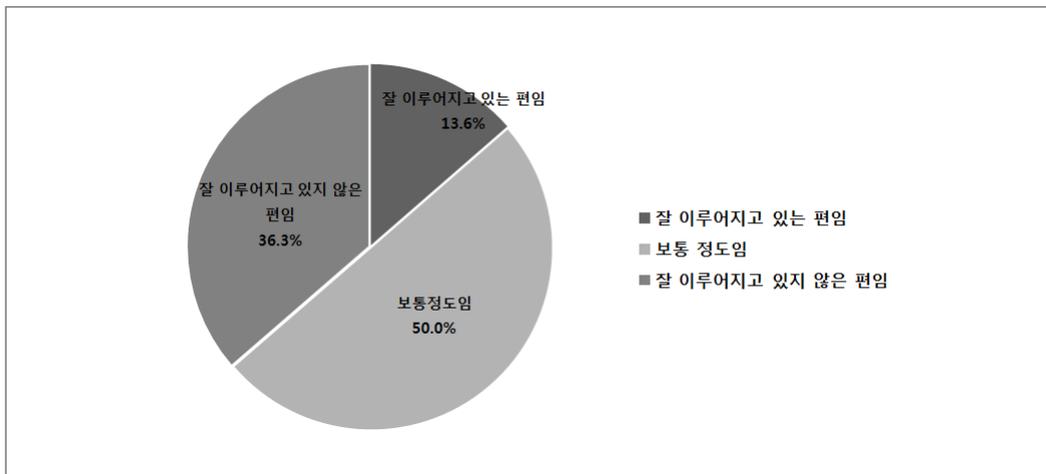
- 전국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을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으로 분류하고 4년제와 2, 3년제를 고려하여 총 22개를 표집하고, 해당 학과 재직 대표 교수 1인을 각각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음. 이들에게 각 대학의 영유아교사 교육과정에서의 인성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과 의견을 질문함.

- 유아교육 또는 보육교사 양성 학과에서 교사의 인성 교육 관련 교과목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를 살펴봄. 이 때 인성 교과목이란 교사 교육과정에서 진행되는 직접적인 교수와 학습, 발달, 지도 방법 등 지식에 관한 수업이 아니라 교사로서의 인성, 인간으로서 학습자 및 영유아, 부모 등에 대한 이해, 자신에 대한 성찰 및 소양 교육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음.
- 대학 교수에게 인성 교육 관련 교과목의 유무를 질문한 결과, 91%(20명)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인성관련 교과목이 있다고 응답함.
  - 인성 교육 관련 교과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유아교육학과의 경우, 전공 필수과목인 ‘유아교사론’에서 유아교사의 역할과 자질, 유아교사의 역량, 교직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음.
  - 2013년부터 학교폭력 대처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를 교직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그 외에 ‘유아교육의 이해’, ‘유아교육사상’, ‘아동생활지도’, ‘교육의 이해와 교육심리’, ‘현대 사회와 윤리 문제’, ‘생활지도와 상담’ 등의 인성 관련 교과목이 있었음.
  - 보육 관련 학과의 경우, ‘보육교사론’에서 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질, 유능한 보육교사, 직업 윤리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으며, 이외에도 ‘보육학개론’, ‘보육실습’, ‘유아교사론’, ‘아동생활 지도’ 등의 과목이 인성교과목으로 인식되고 있었음.
- 그러나 140학점 이상의 졸업 필수 이수 학점 중 각 학교별로 교사 인성 교육 관련 과목은 1~2개에 지나지 않고 있고 평균 1.8개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즉, 2~6학점 정도를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대학별로는 개설 교과목이 최소 0개부터 최대 4개까지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으며, 22개 대학의 평균은 1.82(표준편차 1.18)과목이었음.
  - 인성관련 교과목을 3개 이상 개설하고 있는 학교는 3, 4년제 유아교육학과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교사 양성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사범대학 계열의 유아교육학과의 경우 교사의 소양, 태도 관련한 교직과목을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응답한 경우가 많아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됨.

〈표 1〉 인성 교육 관련 대학 교과목 설치 현황

인성교육 개설 과목 수	해당 대학 수	비율(%)	대학 특성(수)
0 과목	2	9.1	4년제 아동복지(1), 4년제 유아교육(1)
1 과목	8	36.4	3년제 아동보육(1), 4년제 아동관련 학과(4), 4년제 유아교육(3)
2 과목	7	31.8	4년제 아동학(4), 4년제 유아교육(3)
3 과목	2	9.1	4년제 유아교육(1), 3년제 유아교육(1)
4 과목	3	13.6	4년제 유아교육(3)
계	22	100.0	

□ 영유아교사 양성교육과정에서의 인성 교육 현황에 대한 대학 교수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13.6%(3명)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임’, 50%(11명)은 ‘보통정도임’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36.3%(8명)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편임’으로 응답하였다(그림 1 참고). 즉, 인성 교육이 영유아교사 양성 교육과정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비율이 10%대 수준으로 상당히 낮게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에 대부분 동의한다고 볼 수 있음.



[그림 1] 인성 교육 실시 적절성에 대한 대학 교수의 인식 정도

□ 인성 교육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점으로는 ‘인성 교육 관련 교과목이 부족하며, 모든 교과목에서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성 교육 관련 교과목은 이론적 측면에서만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며, 이론적 측면뿐만 아니라 현장실습과정, 교육봉사 등을 통해 인성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양성 대학 교수들의 응답은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분류될 수 있었음.
  - 첫째는 이론이나 지식 전달 수업이 전부인 현실을 개선하여 인성 교육 관련 교과목의 수를 늘리거나 현행 교과마다 인성 교육을 위한 수업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임.
  - 그러나 두 번째의 상반된 입장은, 인성은 교과목으로 가르칠 수 없는 것이고 단기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므로 봉사활동이나 아동 대상 실습의 강화 등으로 스스로 길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 그럼에도 대부분의 교수는 현재는 인성 교육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고 교과목이든 실험적 습득이든 이에 대한 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에는 동의하고 있음.

## 2)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대상 조사

- 조사에 참여한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는 총 1,600명으로 각각 800명씩임. 이들은 전국 표본으로서, 연령별로는 50대(8.0%)를 제외하고 20대(35.0%), 30대(31.4%), 40대(25.6%)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고 학력으로는 4년제 이상 졸업이 55.2%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지역과 경력 정도,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설립 유형(공립, 사립 등)이 비슷한 분포로 포함됨.
- 대학이나 보육교사교육원 등에서 인성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절반 정도(유치원 50.3%, 어린이집 48.5%)가 인성검사를 받았던 것으로 응답함.
  - 인성검사를 받은 시기로는 기관유형이나 교사 경력에 따라서 학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주로 1, 2학년 등 저학년기에 검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 대학에서 영유아교사의 바람직한 인성에 대해 수업을 듣고 공부한 적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유치원(72.9%)과 어린이집(70.5%) 교사 모두 70%이상이 '그렇다'라고 응답함. 그러나 대학에서 교사 인성과 관련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은, 유치원(54.8%)과 어린이집(54.5%) 교사 모두 과반수 정도가 조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비율 또한 26.3%~29.6%로 나타남.
- 교사가 되려는 사람에게 대학 등에서 인성 교육 과목을 교육과정에 편성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살펴본 결과, 기관유형, 교사 경력, 학력과 무관하게 모두에서 80%이상의 높은 비율로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나. 현직 교사 교육<sup>1)</sup>에서의 인성교육 실태와 요구

-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대상 조사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가 임용된 후에 교사 연수 또는 재교육 과정에서 인성 교육 관련 수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수업에 참여하였다고 응답한 교사 비율은 78.8% 정도로 나타났으며 유치원 교사가 81.0%로 어린이집 교사 76.5%보다 조금 높았음(표 2 참고).

〈표 2〉 교사 임용 후, 현직교육에서 인성 교육 과정 참여 경험 여부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chi^2(df)$
전체	78.8	21.3	100(1600)	
기관유형				
유치원	81.0	19.0	100( 800)	4.84(1)*
어린이집	76.5	23.5	100( 800)	

\*  $p < .05$

- 인성 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한 주관 기관을 살펴보면, 유치원의 경우 교육청이 42.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온라인전문교육기관(28.6%), 대학 등 교육기관(13.3%)의 순이었음.
  -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40.6%로 인성 교육 관련 연수를 주로 담당하고 있었으며 온라인 전문교육기관이 20.8%, 대학 등 교육기관 15.8%, 시·군·구청 등 지자체가 13.6%였음.
- 교사 현직교육 또는 연수에서 인성 교육 수업이 필요한지 의견을 질문한 결과 91%이상의 교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74.8%는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임.
- 기관유형별로 유치원 교사(3.76점)가 어린이집 교사(3.70점)보다 교사 인성 교육 수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약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2년 미만의 교사(3.62점)보다 10년 이상의 교사(3.79점)가 필요성 인식률이 높았음.

1)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가 현직에 종사하는 동안 받게 되는 연수, 보수교육, 재교육 등의 과정을 의미함.

□ 교사 연수에서 인성 교육 시 다루어졌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학 분야 교육이 42.8%,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 33.4%, 사회성증진 프로그램 15.8%, 신체건강증진프로그램 3.6%, 인문학적 소양교육 3.4%의 순이었음.

- 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는 학력과 경력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었음. 경력이 2년 미만의 신입 교사들은 영유아 교육과 관련한 직무교육, 정신건강교육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았던 반면 10년 이상 경력직 교사는 대인관계와 관련한 요구가 많았음.
- 학력별로도 고졸 등 학력이 낮은 경우 교육학적 지식에 대한 요구가 높은 반면 학력이 높은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대인관계, 인문학적 소양을 필요로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3 참고).

〈표 3〉 교사 현직 교육에서 요구되는 인성 교육의 주제

단위: %(명)

구분	교육학 분야	정신 건강 증진	신체 건강 증진	인문학 소양	대인 관계	그 외	계(수)	$\chi^2(df)$
전체	42.8	33.4	3.6	3.4	15.8	0.9	100(1600)	
기관유형								
유치원	41.0	32.6	3.8	4.6	17.0	1.0	100( 800)	10.51(5)
어린이집	44.6	34.3	3.5	2.1	14.6	0.9	100( 800)	
교사 경력								
2년 미만	47.7	36.0	6.1	0.5	8.6	1.0	100( 197)	57.68(15)***
2년~5년 미만	44.4	36.0	3.7	2.9	12.6	0.5	100( 381)	
5년~10년 미만	44.6	34.3	2.6	1.4	15.8	1.2	100( 493)	
10년 이상	38.2	29.9	3.6	6.6	20.8	0.9	100( 529)	
학력								
고졸 이하	53.4	34.5	1.7	0.0	10.3	0.0	100( 58)	76.25(20)***
2년제 대학 졸업	48.4	31.7	2.9	1.6	14.9	0.5	100( 382)	
3년제 대학 졸업	49.6	29.7	2.5	1.8	15.2	1.1	100( 276)	
4년제 대학 졸업	40.1	35.6	4.9	3.0	15.3	1.2	100( 674)	
대학원 졸업 이상	29.5	34.3	2.9	11.0	21.4	1.0	100( 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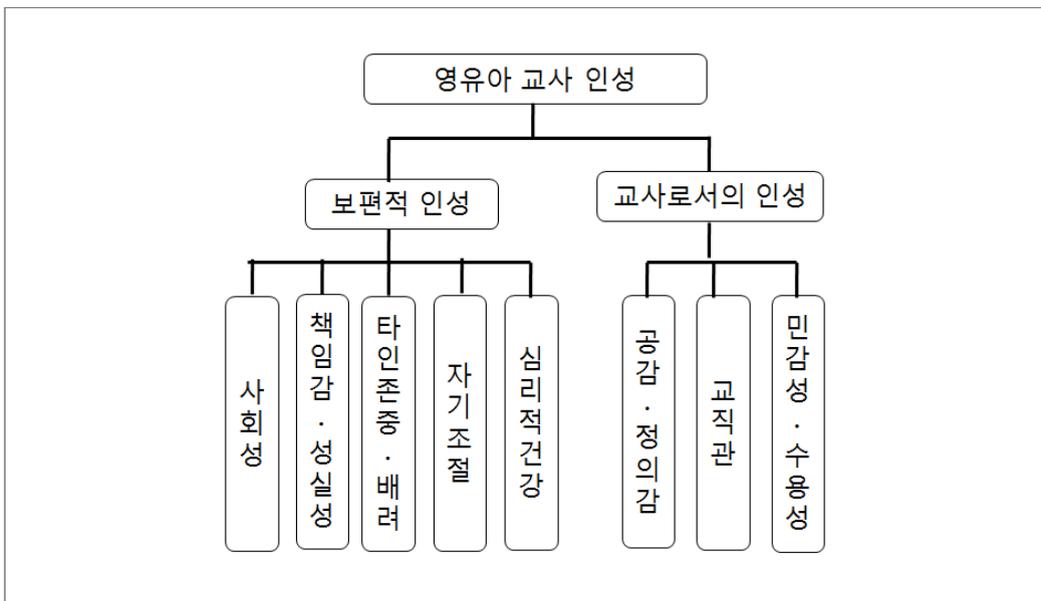
\*\*\*  $p < .001$

### 3 인성 측정 도구 개발

- 여러 선행 연구자들은 교사의 인성검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성의 구성 개념을 보편적 인성과 교직 인성으로 구분하고 있음.
  - 김경령과 서은희(2014)는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성검사를 개발하면서 주요 구성 개념을 보편적 인성과 교직인성으로 구분해야 함을 제시함.
  - 김순환·박선혜·남옥선(2014) 또한 일반적인 인성과 교직인성으로 구분하여 예비유아교사에 대한 교직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바 있음.
- 선행연구에 의하면 교사에 필요한 인성은 보편적 인성과 교직 인성이 있으며, 각각은 여러 구인으로 측정될 수 있음.
  - 김경령과 서은희(2014)는 보편적 인성으로 자기조절, 사회성, 도덕성, 책임감을 꼽고 교직인성으로 소명의식, 학생에 대한 열정, 교육적 신념을 들었음.
  - 김순환 외(2014)는 기본인성으로 존중, 책임감, 양심, 자존감, 겸손, 감정이입, 자기통제를 들고 유치원 교원의 핵심역량이라 할 수 있는 교직 인성으로 유치원교사의 윤리강령, 사회인지의 중요성을 꼽았음.
  - 김혜경(2012)은 보육교사 적성으로 대인관계능력, 수용성과 민감성, 창의성과 자기개발, 영유아에 대한 친화력 등을 주요 요소로 제시하였고, 서경혜 외(2013)는 내적인성에 자기조절, 반성적 실천, 지속적 배움을 포함하고 사회적 인성에는 존중, 의사소통, 협력, 그리고 공동체적 인성에는 윤리의식, 정의감, 책임감 등을 포함함.
- 연구자에 따라 인성에 대한 다양한 구분 범위와 인성요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들 각각에 대한 적합성 검토가 필요하고, 어떠한 요소가 얼마나 선택되고 있는지에 대한 수적 선호 분석도 필요함. 이를 위한 과정으로 각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인성 요소들을 보편적 인성과 교사에게 요구되는 인성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을 연구문헌별로 나열함.
- 결과적으로 보편적 인성에 포함되는 것은 자기조절, 책임감, 반성적 실천, 성실성, 도덕성, 봉사·희생·이타성, 신뢰, 인내, 사회성, 의사소통, 공감적 이해, 주도성, 열의, 사려성·타인존중, 심리적 건강, 협동·협력, 창의·응용력 등 22개의 요소임.

- 검토된 19개 문헌 중 8개 이상의 문헌에서 인성의 주요 요소로 등장하는 8개 요소를 1차적으로 선정함. 그리고 본 연구에서 채택한 정의적 개념의 인성에 충실하도록 ‘적성’에 해당하는 문제해결력, 창의응용력 등의 요소와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이는 반성적 실천, 신뢰, 유머·위트, 인간존중을 함께 제외하였음.
  - 봉사·희생·이타성은 현 시점에서 중요한 덕목으로 인정되는 비슷한 용어인 ‘배려’로 수렴하였고 타인존중과 의미상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같은 요소로 포함하였음. 뿐만 아니라 책임감과 성실성은 실제 문항의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으므로 이를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하여 책임감·성실성으로 병렬표기 하였음.
  - 결과적으로 보편적 인성은 자기조절, 자존감, 책임감·성실성, 도덕성, 인내심, 공감적 이해, 주도성, 심리적 건강 등 8개로 좁혀졌음.
-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교사에게 요구되는 인성, 즉 교직인성에 포함되는 요소들을 뽑아 보면, 주로 소명의식, 학생에 대한 열정, 영유아에 대한 사랑, 교육적 신념, 지식습득, 자기발전, 발달에 대한 지식, 지도성, 직무수행태도, 자긍심, 탐구력, 학습준비 등으로 나타남.
- 이들 중 인성보다는 적성에 가까우면서 선행연구에서의 등장 빈도가 낮은 학습준비, 탐구력, 자긍심, 직무수행 태도, 전문성, 지식습득, 지도성 등을 1차적으로 제외함.
  -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요소인 자기발전(계발) 또한 정의적 영역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제외하였음. ‘학생 이해 능력’은 빈도가 높은 편이나 앞서 선정한 ‘공감적 이해’와 의미 중복이 있어 역시 제외하였고, ‘학생에 대한 열정’은 빈도가 낮으나 영유아에 대한 사랑과 의미 중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서 보편적 인성에서 열의, 열성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영유아교사에 적절한 영유아에 대한 열정으로 통합하여 수용하였음.
  - 검사지의 실제 문항을 확인한 결과 교육적 신념과 소명의식이 비슷한 내용으로 보이고, 둘 간의 구분이 불명확하므로 보다 일반적인 용어인 소명의식을 선택하여 요소의 수를 줄였음.
- 선행연구 결과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영유아교사 인성 구성 요소를 유아교육, 아동학, 교육학 전공 교수로 이루어진 전문가 집단에 대해 자문회의와 의견조사를 거쳐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최종적인 영유아교사 인성 요소를 결정함.

- 보편적 인성과 교사로서의 인성의 2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정리된 인성 구성요소는 보편적 인성에는 자기조절, 자존감, 책임감·성실성, 도덕성, 사회성, 타인존중·배려, 심리적 건강이 포함되었고, 교사로서의 인성에는 교직원(소명의식), 영유아에 대한 열정, 주도성, 수용성, 민감성, 인내심, 공감적 이해 등 7개 요소가 포함됨.
- 이후 각 요소별로 문항 초안을 개발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문항적절성 검토, 타당도와 신뢰도 확인 작업 등을 거쳐 최종 94개 문항을 확정하였음.
- 요인분석에 의해 최종 8개 요인을 확인하여 각각 민감성·수용성, 심리적 건강, 사회성, 책임감·성실성, 타인존중·배려심, 교직원, 자기조절, 공감·정의감으로 명명함.
- 최종 8요인 94문항의 Cronbach's  $\alpha$ 는 .961이었으며, 도구의 전체 및 각 하위요소간 상관계수는 .59~.89로 적절한 수준을 보이고 있었음. 이에 따라 문항내 변별타당도와 수렴타당도 수준을 확인하였고, 더불어 기존의 도구인 '교사효능감 척도'(김연하·김양은, 2008)와 '예비 교사 교직 인성 평가 도구'(서경혜 외, 2013)와의 상관 계수를 통해 공인타당도를 살펴보았음. 이 때 두 척도와의 상관은 각각 .74와 .80으로 나타나 타당도가 확인되었음.



[그림 2] '인성 평가 도구' 구성 요소 및 영역

## 4 영유아 교사의 인성 측정

- 본 고에서는 김은설 외(2015)가 제작한 ‘영유아 교사 인성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현직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1,60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영유아 교사의 인성 수준을 살펴보았음.
- 현직 교사 대상 인성 평가 도구의 하위요인별 전체 문항 평균 및 표준편차, 문항 수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인성 요인별 평균은 모두 5점 척도 중 3.25~4.04점 수준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남.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보면, ‘매우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지는 못하고 대부분 ‘높은 편’ 또는 ‘보통’ 정도의 인성 요소별 수준을 보여주었음.
  - 교사로서의 인성 구성 요소 중 공감·정의감이 4.04점으로 가장 높은 전체 문항평균 점수를 보였으며, 교직원(소명 의식)은 4.03점, 민감성·수용성 4.02점, 책임감·성실성 3.97점, 타인존중·배려 3.94점이었음.
  - 우울증, 편집증 등을 측정하는 심리적 건강(3.38점)과 자기조절(3.25점) 점수가 다른 인성 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이들 요소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을 함의함. 대체로 교사로서의 인성 영역보다는 보편적 인성 영역의 요소 점수가 낮은 편임.

<표 4> 영유아교사의 인성 요인별 문항 평균 및 표준편차

단위: 점, 문항, 명

하위요인명	평균	표준편차	문항수	100점 환산점	사례수
민감성·수용성	4.02	0.65	24	80.4	1,600
심리적 건강	3.38	0.95	16	67.6	
사회성	3.61	0.80	6	72.2	
책임감·성실성	3.97	0.74	13	79.4	
타인존중·배려심	3.94	0.68	11	78.8	
교직원(소명 의식)	4.03	0.76	10	80.6	
자기조절	3.25	0.91	6	65.0	
공감·정의감	4.04	0.72	8	80.8	

- 무엇보다 영유아를 대하는 교사에게 필요한 능력으로 사료되는 ‘자기조절’ 점수가 낮은 것은 현직 교사 교육에서 이를 특히 관심두어야 할 것으로 보임. 자기조절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여 정서를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 행동억제·충동억제·만족지연·유혹에의 저항’으로 정의될 수 있음.

□ 교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성 요소로는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소명의식이 24.1%로 가장 높았고, 책임감이 14.0%, 자기 조절이 11.9%로 상위에 포함되었으며, 사회성(1.6%)과 민감성(1.4%)은 다른 인성 요소들에 비해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비율이 낮았음 (표 5 참고).

〈표 5〉 영유아 교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성 구성 요소

단위: %(명)

구분	자기 조절	자존감	책임감	성실성	도덕성	사회성	타인 존중	배려	심리적 건강	소명 의식	수용성	민감성	인내심	공감능력	기타	계(수)
전체	11.9	7.1	14.0	5.6	3.6	1.6	4.1	6.3	4.2	24.1	3.2	1.4	6.7	6.2	0.1	100(1600)
기관유형																
유치원	9.3	7.5	14.3	5.0	4.4	1.6	3.5	7.0	4.4	24.4	3.8	1.0	6.9	7.0	0.1	100( 800)
어린이집	14.5	6.8	13.8	6.1	2.8	1.6	4.8	5.6	4.0	23.9	2.6	1.8	6.5	5.4	0.0	100( 800)
교사 경력																
2년 미만	13.2	6.6	14.2	3.0	4.1	1.0	4.1	3.6	2.5	20.3	2.0	2.5	12.7	9.6	0.5	100( 197)
2-5년	12.9	5.8	17.3	4.7	3.1	1.3	5.5	4.2	4.2	19.9	3.1	1.6	10.0	6.3	0.0	100( 381)
5-10년	11.6	6.3	14.2	6.5	4.7	1.6	3.9	7.5	5.1	24.1	3.4	1.6	4.5	5.1	0.0	100( 493)
10년 이상	11.0	9.1	11.3	6.2	2.6	2.1	3.4	7.8	4.0	28.5	3.4	0.6	4.2	5.9	0.0	100( 529)

\*\*\*  $p < .001$ .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본인이 영유아교사로서 적절한 인성을 갖추었다고 보는지 의견을 물은 결과 대부분 긍정적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성을 충분히 갖추었음에 대한 자신감은 별로 없는 듯이 보임.
- 전체적으로 교사로서의 인성을 ‘조금 갖추고 있는 편임’이 47.0%, ‘충분히 갖추고 있는 편임’이 50.9%로 나타남. 그러나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는 편이 절반 정도 밖에 안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표 6참고).

〈표 6〉 영유아교사로서 적절한 인성을 갖추었는가에 대한 자기 평가

단위: %(명), 점

구분	거의 갖추지 못함	별로 갖추지 못함	조금 갖추고 있음	충분히 갖추고 있음	계(수)	평균	표준 편차	t/F
전체	0.2	1.9	47.0	50.9	100(1600)	3.49	0.55	
기관유형								
유치원	0.3	1.3	44.6	53.9	100( 800)	3.52	0.54	2.61**
어린이집	0.1	2.6	49.4	47.9	100( 800)	3.45	0.55	
교사 경력								
2년 미만	0.0	4.6	55.3	40.1	100( 197)	3.36 <sub>a</sub>	0.57	9.50***
2년~5년 미만	0.0	1.3	54.1	44.6	100( 381)	3.43 <sub>ac</sub>	0.52	
5년~10년 미만	0.0	2.2	47.1	50.7	100( 493)	3.48 <sub>bc</sub>	0.54	
10년 이상	0.6	1.1	38.8	59.5	100( 529)	3.57 <sub>b</sub>	0.55	
학력								
고졸 이하	0.0	0.0	41.4	58.6	100( 58)	3.59	0.5	7.91***
2년제 대학 졸업	0.0	3.7	51.3	45.0	100( 382)	3.41 <sub>a</sub>	0.56	
3년제 대학 졸업	0.0	2.5	57.6	39.9	100( 276)	3.37 <sub>a</sub>	0.53	
4년제 대학 졸업	0.1	1.3	43.0	55.5	100( 674)	3.54 <sub>b</sub>	0.53	
대학원 졸업 이상	1.0	0.5	39.5	59.0	100( 210)	3.57 <sub>b</sub>	0.56	

주: Scheffe 검증 결과로 a, b와 c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  $p < .01$ , \*\*\*  $p < .001$

## 5 정책 제언

□ 성인의 인성이 가르쳐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있기도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인성 특히, 교사라는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인성은 교육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안을 제시함.

- 발달 초기에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사 교육에서는 인성 교육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함. 영유아와 관련한 학대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교사에 대한 인성 교육은 그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하고 보다 개선되고 강화되어야 함.

- 도덕심리학자인 Kohlberg는 인간의 도덕성은 6개의 단계를 통해 일생동안 발달한다고 하고 이론에 근거하여 도덕적 판단 딜레마를 활용한 도덕성 발달 수준 측정과 논거 토론을 통한 도덕성 교육 방법을 제시함(Power, Higgins, & Kohlberg, 1989). 성인의 인성은 변화가 어려운 실재이지만 Kohlberg의 전생애적 발달 이론을 떠올린다면 인간은 일생을 통해 여러 경험과 함께 변화할 있는 가소성을 지녔음을 수용하여 인성 교육은 지속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고 봄.
- 영유아교사가 바람직한 인성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는 비단 교육적 측면만이 아니라 스트레스, 처우 등 교사를 둘러싼 근무환경이 갖는 영향력을 고려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정책 제안에는 이를 함께 고려함.

### 가. 인성 검사 실시 및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 표준화된 영유아 인성검사 도구의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인성 검사의 결과와 인성 교육 내용을 연결함으로써, 증거기반한 교사 개인 맞춤형 인성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제공될 필요가 있음.
- 인성 평가 도구는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개인은 각 영역별로 프로파일 형태의 점수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함. 그러므로 자신에게 부족한 인성의 측면이 어떤 것인지 확인이 가능하고 이 영역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인성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함.
- 만일 인성 요소 중 공감능력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온다면 공감, 민감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함. 또한 ‘심리적 건강’에서 문제 발견된다면 상담이나 정신과적 진료 등 전문가가 개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원활하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인성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교육에 활용하도록 하는 업무 담당이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 있어야 함.
- 조사의 결과가 보여 주듯이, 교사의 경력이나 학력에 따라 요구하는 교육의 주요 내용이 다르므로 각 경우에 적절한 내용을 선별하여 필요로 하는 대상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정교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임.
- 인성 평가 도구에 의한 결과에 의거하여 개인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 활용도를 높이고 개인별로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이 교사 인성 교육을 위해 준비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교사 재교육 전문기관(유아교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인적, 물적 확충이 필요함.

## 나. 인성 교육 프로그램 참여의 제도적 유도

- 전문적 인성 측정과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정부 지원 기관의 역할로 부과될 수도 있음. 교육에 대한 비용은 정부가 50%를 지원하고 교사가 소속한 기관, 교사 개인 등이 나머지 일부를 공동 부담할 수도 있도록 함으로써 인성 평가와 교육의 중요성을 지각하게 해야 할 것임.
- 영유아교사 인성검사와 인성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혹은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승급교육, 유치원교사 자격연수 등과 연계하여 점수 과락 등이 적용되도록 하거나 가점을 추가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함.

## 다. 현직 교사의 인성 측정 및 관리 강화

- 현직 교사의 인성 측정을 위한 접근 방법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그 결과를 현직 교사 교육 전문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전문적으로 세분화된 인성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현직 교사에 대한 인성 측정은 임용 첫 해와 5년 이전 등 임용 초기에 우선적으로 실시되도록 하고 특히 심리적 건강을 측정하는 문항은 주기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함.
  - 현직 교사의 인성 측정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별 실시를 할 수 있음. 교육청이나 지자체 중심으로 인성 검사용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라. 교사 양성 과정에서 인성 관련 교과목의 확충

- 대학이나 보육교사교육원 등 영유아교사의 양성 과정과 현직 교사의 재교육 과정을 모두 고려하여 인성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 인성과 관련한 교과목, 특히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 교사로서의 가치관 등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생각해보고 반성적 실천과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험을 충분히 제공하는 교과목이 필수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음.
  - 보육교사의 경우 72학점 중 '보육교사론' 1개 과목만이 한두 장(chapter)에서 교사직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전체 비중에서 이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므로 교사직과 관련한 과목의 확대를 검토해 보아야 함.

- 3급 보육교사 양성 과정에서는 ‘보육교사론’이 필수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교사로서의 인성 함양 측면에서 부족함이 예측됨. 그러므로 3급 양성 과정에서도 보육교사론 과목의 이수를 필수로 요구할 것이 고려되어야 함.

#### 마. 교육 실습 시간 확대 및 내실화

- 영유아와 상호작용을 하고 교사로서의 역할에 대해 일찍부터 참여해볼 수 있도록 실습 시간을 확대하고 이 활동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양성기관이 철저히 하도록 함.
- 인성에 대한 평가와 지도는 지필식 문항뿐 아니라 실제 실습과정에서 더 극명히 이루어질 수 있음. 영유아에 대한 상호작용 방식, 영유아 권리에 대한 인식, 영유아교사로서의 윤리 인식 등이 실제 상황에서 올바르게 발현될 수 있도록 실습 방법을 강화하는 것 또한 인성 교육을 강화하는 하나의 접근법이 될 수 있음.
- 실습 강화를 위해서는 실습 현장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인성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경력이 오랜 원장 등으로 하여금 예비 교사들의 실습에 대한 인성 측면의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긍정적인 인성 향상을 위한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함.

#### 바. 대학별 집중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 인성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학이 자체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함.
- 영유아 기관, 즉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원장, 동료, 부모 등), 윤리적 문제, 영유아를 돌보면서 접할 수 있는 어려움 등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고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 이는 교과목으로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예비 영유아교사 캠프, 현장 전문가와의 대화 등 체계적으로 프로그램화된 방식으로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필요함.

#### 사. 교사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한 인성개선 지원

- 인성 점수에 교사의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됨<sup>2)</sup>. 즉, 교사가 가질 수 있는 업무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2) 김은설 외(2015) 연구 보고서의 조사 결과에 의함.

- 영유아교사의 근무 시간 중 휴식 시간을 확보해야 함. 휴식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임.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하면,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물론 영유아를 종일 돌보아야 하는 교사의 경우 일정 시간마다 개인적 휴식시간을 갖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음. 그럼에도 교사가 근로자임을 인정한다면 이러한 법 조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사용자는 최대한 해야 하며 그러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구체적으로는, 일과 중 담임 교사의 휴식시간을 미리 계획하고 이 시간을 대체 인력(원장, 보조교사 등)이 담당할 수 있도록 준비함. 그러나 영유아반 담임이 30분 이상씩 자리를 비우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므로, 2시간마다 10-15분씩 나누어 쉬도록 하고 한 번에 20분을 넘지 않도록 함.
  - 근로 시간 중의 휴식은 일의 능률을 높이고 휴식 시간 이후 영유아에 대한 교사의 집중력 또한 높아질 수 있을 것임. 휴게 공간이 별도로 있을 수 있는 환경이면 더욱 바람직하겠으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교사가 다수의 담당 영유아로부터 이격해 있는 시간은 필수적임. 이에 대해서는 학부모 등 사회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함.
- 지원 인력이 투입되어 교사의 업무 부담이 덜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교사의 업무를 분석하여 분류하고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에 필요한 인력을 전문화하는 것이 요구됨.
  - 현재 대부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교사 외에 조리종사자(취사부)를 고용하고 있음. 정부 인건비 지원 시설에는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 지원 또한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최소한 교사 업무와 취사부 업무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직종은 반드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구비되어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 그러므로 취사부 뿐 아니라 청소인력, 영아 대소변 처리 지원 인력, 영유아 식사 도우미 인력 등 교사가 아닌 비전문 인력이 할 수 있는 일을 담당하도록 인력 채용과 이에 대한 지원이 있다면 교사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영유아교사의 인성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현재 유치원에서 활용하는 ‘3세대 하모니’ 사업이나 일부 지자체의 ‘보육도우미’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 ● ● 참고문헌

- 김경령·서은희(2014). 예비 교사의 교직인성 자기점검도구 개발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31(1), 117-139.
- 김순환·박선혜·남옥선(2014).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교직인성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유아교육학논집, 18(2), 339-363.
- 김연하·김양은(2008). Bandura의 교사 자기 효능감 척도 요인구조 분석. 유아교육연구, 28(2), 169-191.
- 김은설·김길숙·이민경(2015). 영유아 교사 인성 평가 및 교육 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정환·남현우·염시창·임진영(2012). 교직 적성·인성 검사도구 개발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김혜경(2012). 보육교사 적성검사 도구 개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교육부(2014).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 서경혜·최진영·노선숙·김수진·이지영·현성혜(2013). 예비 교사 교직 인성 평가도구 개발 및 타당화. 교육과학연구, 44(1), 147-176.
- Berk, L.(2006). *Child Development*, 7<sup>th</sup> ed. Boston, MA: Pearson Education Inc.
- Power, F. C., Higgins, A., & Kohlberg, L.(1989). *Lawrence Kohlberg's approach to moral Educ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